

# 棄兒라는 文學的 모티브에 대한 연구\*

— 韓中日 文學를 중심으로

Barbara Wall\*\*

< 목 차 >

1. 緒 論
2. 棄兒라는 모티브에 대한 接近
  - (1) 概念의 正義
  - (2) 棄兒가 등장하는 文學作品의 즐거리
3. 棄兒가 등장하는 文學作品
  - (1) 中國作品
  - (2) 韓國作品
  - (3) 日本作品
4. 棄兒가 등장하는 韓中日 文學作品의 特性
5. 結 論

## 1. 緒 論

동서고금을 통해서 棄兒라는 文學적 모티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서양에서는 유대인의 선지자인 모세, 로마 건국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등이 棄兒로 알려져 있다. 중국문학에서도 棄兒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유기 제9회의 <江流和尚> 이야기에서도 삼장법사가

棄兒로 등장한다. 또 周나라의 시조인 後稷에 대한 신화도 있고, 부처의 전생이야기를 담고 있는 《六度集經·童子本生》에서도 보살이 역시 棄兒로 나타난다. 棄兒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한국작품으로 민담인 《열두삼천별》, 고구려의 건국을 서술하는 東明王神話와 바리공주에 대한 신화, 그리고 신라시대에 활동했던 학자인 崔致遠의 《崔孤雲傳》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아쿠타가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소설인 《捨兒》, 《弃慶物語》, 그리고 《누에의 유래(蚕の始め)》등과 같은 昔話(무카시바니시)를 찾을 수 있다.

어느 한 문화권에서만 이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문화권 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棄兒라는 모티브가 여러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모티브의 유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특정한 문화권의 틀을 넘어 여러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신적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韓中日 문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서양에서 모티브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권위자인 프렌첼(Elisabeth Frenzel)은 《세계문학의 모티브 Motive der Weltliteratur》<sup>1)</sup>라는 책에서 54가지 모티브를 소개하는 데 대표적으로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설명한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 《세계문학의 모티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로 인도유럽어로 지어진 문학작품만 포함한 것이다. 한 세뇌레(Jean-Charles Seigneuret)는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sup>2)</sup>의 서론에서 사전을 편집할 때 서양 문학이 아닌 작품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 결국 영국과 미국 문학을 위주로 거의 서양 문학작품만을 고려하였을 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여 서양문학이 아닌 문학만을 대상으로 삼는 모티브에 관한 사전을 만들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sup>3)</sup>

모티브에 대한 연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톰프슨(Stith Thompsen)은 그의 *Motif-Index of Folk-Literature*에서 동아시아의 문학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1) Frenzel, Elisabeth. *Motive 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80.

2) Thompson, Stith.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58.

3) Seigneuret, Jean-Charles.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8, pp. xi-xii.

\* 이 논문은 2008년 고려대학교 BK21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高麗大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문헌 부록에서 에베하르트(Wolfram Eberhard)의 *Typen chinesischer Volksmärchen* (中國民間故事類型<sup>4)</sup>, Ikeda의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sup>5)</sup>, 그리고 Zong In-sob(鄭寅燮)의 *Folk Tales from Korea*<sup>6)</sup>라는 책들이 있는데 규모가 서양문학에 관한 자료보다 적으며 원어로 된 자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sup>7)</sup>

기존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계기로 삼아서 일단 한 가지 모티브만, 즉 棄兒라는 모티브에 집중하여 韓中日 문학<sup>8)</sup>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한다.

棄兒라는 모티브가 韓中日 문학에서 어느 작품에 등장하는가? 아이를 버려진 이야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버림의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장소에 아이를 버리는가? 버리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버림을 받는 것은 棄兒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서양 작품과 비교하여 棄兒가 등장하는 韓中日 文學作品中에서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가? 棄兒라는 모티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모티브가 무엇인지, 또한 棄兒라는 모티브가 문학작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棄兒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문학작품으로 韓中日 문학작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서 棄兒라는 모티브에 대한 분석 제안을 제시한다.

## 2. 棄兒라는 모티브에 대한 接近

이 장에서 棄兒라는 모티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모티브가 무엇인지, 또한 棄兒라는 모티브가 문학작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 (1) 개념의 定義

문학적인 모티브라는 개념에 대해 아직 일정한 정의가 없지만<sup>9)</sup> 모티브라는 개념은 원래 음악에서 가장 작은 특징적인 선율의 단위를 의미하였다. 모티브라는 문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모티브(Motiv)·소재(Stoff)·테마(Thema), 세 개념의 관계를 알면 도움이 된다.

소재를 멜로디에 비유한다면 모티브는 한 가지 화음에 불과하다. 소재는 일정한 이름과 사건에 의존하고 간단한 플롯을 제시한다. 작가들이 이러한 플롯을 이용하면서 보충하여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모티브는 단지 익명의 인물과 사건을 제시하여 플롯의 출발점만 알려 준다.

예를 들면 브루투스<sup>10)</sup>-소재는 성공적으로 폭군을 암살하는 내용인데 이 소재의 특징은 살인자와 피살자 사이의 친한 관계에 있다. 브루투스-소재를 다루는 작가의 주관심사는 살인자와 피살자의 관계와 이 관계의 파괴를 심리학적으로 밝혀서 살인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와는 달리 ‘폭군의 암살’이라는 모티브는 플롯의 출발점, 즉 갈등의 씨앗만을 제시하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는 작

4) Eberhard, Wolfram. *Typen chinesischer Volksmärchen*.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37.

5) Ikeda, Hiroko.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1.

6)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7) 원어로 된 자료로 金榮華의 《中國民間故事集成類型索引》, 崔仁鶴의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그리고 關敬吾의 《日本昔話大成》 등이 있는데 모두 한 나라에 한하여 이러한 의미에서는 이 자료를 종합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8) 모티브연구는 자주 설화연구와 연결시켜서 진행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설화 뿐 만 아니라 문학의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

9) Frenzel, Elisabeth. *Stoff-und Motivgeschichte*. Berlin: Erich Schmidt Verlag, 1966, p.11: 朱迪光, 《信仰·母體·敘事》(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77-97쪽.

10) 브루투스(Marcus Junius Brutus: B.C.85-B.C.42)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였는데 44년에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하였다.

가에게 맡긴다.<sup>11)</sup>

모티브(Motiv)의 어원이 라틴어의 movere(=움직인다)에 있어 모티브는 이야기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다시 말하면 모티브라는 개념은 소재의 싹트는 힘이 있고 결합할 수 있는 요소를 가리킨다. 결국은 여러 모티브의 연속이 소재를 형성하는 것이다.<sup>13)</sup>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Stoff(소재)라는 독일어 개념을 일반적으로 영어로 theme으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영어의 'Theme'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이지 않아 Stoff(소재), Motiv(모티브), Thema(테마)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sup>14)</sup> 그러면 독일어의 테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를 들면 신의, 사랑, 우정, 죽음 등은 독일어의 테마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테마를 모티브로 발전시키려면 테마에 어떠한 조건을 추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정이 테마라고 한다면 '우정의 증거'를 모티브라고 할 수 있다. 모티브가 일반적으로 상황과 관련된 것에 반하여 테마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sup>15)</sup> 요약하면 모티브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소재와 추상적인 테마의 중간위치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sup>16)</sup>

## (2) 棄兒가 등장하는 文學作品的 줄거리

棄兒라는 모티브는 소재가 아니라 플롯 전체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棄兒라는 모티브를 출발점으로 삼는 문학작품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가를 이 절에서 소개한다.

棄兒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작품은 일반적으로 아이의 특이하고 신기한 탄생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면 부모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 神출신이라든가, 동물이 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사생아인 경우도 자주 보인다. 많은 경우에는 아이가 특별히 예쁘다고 묘사되어 있는데 결국 부모나 적에게 버림을 당한다. 아이를 버리는 이유로 불길한 예언이나 당시의 위험한 상황이나 사생아가 치욕을 초래할 걱정 등을 들 수 있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은 하인인 경우도 있는데 원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차마 죽이지 못하여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를 버리는 장소는 대지나 물이다. 대지인 경우 숲, 산, 강가 등이며 물인 경우는 강이나 바다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바구니나 상자, 작은 배에 놓고서 버린다. 아이를 버릴 때는 나중에 아이의 특별한 출신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 즉 옷, 편지, 장식, 돈 등을 아이와 같이 버린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의 구체적인 출신보다는 아이의 출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물건들이 많다.

버림을 당한지 얼마 안 될 때 아이를 구제할 귀신이나 동물들이 나타나 아이를 보호하고 길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운명이 아이를 강이나 바다에서 일정한 장소까지 흐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참 있다가 서민, 즉 어부나 목동 등, 아니면 왕이나 공주와 같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발견한다. 아이를 발견한 사람 중에 스스로 아이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아이를 발견하고 나서 아이를 스스로 길러 주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아이가 자라면서 일찍부터 그의 우월한 능력이 나타나 지도자가 된 경우가 많다.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버림의 책임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싸워야 되거나, 자기의 출신에 대해 알게 되어 부모를 다시 찾는 과정이 자주 보이는데 결국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해피

11) Frenzel, Elisabeth. *Motive 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80, pp.VI-VII.

12) Gfreis, Heike. *Grundbegriffe der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Metzler, 1999, p.130; Jost, Francois.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iterature*.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4, p.182.

13) Daemrlich, Horst S. Daemrlich, Ingrid. *Themen und Motive in der Literatur: ein Handbuch* Tuebingen: Francke, 1987, p.230; Weisstein, Ulrich.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Kohlhammer, 1968, p.173.

14) Jost, Francois.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iterature*.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4, pp.177-181; Seigneuret, Jean-Charles.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8, p.xvii; Frenzel, Elisabeth. *Stoffe 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76, p.V.

15) Weisstein, Ulrich.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Kohlhammer, 1968, p.174.

16) Daemrlich, Horst S. *Themes and Motifs in Literature: Approaches-Trends-Definition. The German Quarterly*, Vol. 58, No. 4, 1985, p.567; Würzbach, Natascha. *Theorie und Praxis des Motiv-Begriffs. Überlegungen bei der Erstellung eines Motiv-Index zum Child-Korpus. Jahrbuch für Volksliedforschung*, 38, 1993, p.70.

엔드로 끝난 경우가 많다. 만일 출생 전후에 예언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예언대로 끝난다.<sup>17)</sup>

### 3. 棄兒가 등장하는 文學作品

이 장에서는 棄兒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韓中日문학작품을 소개한다. 棄兒가 등장하는 작품을 버림의 동기, 즉 동정, 두려움, 미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모세<sup>18)</sup>와 같이 아이를 죽음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즉 同情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둘째, 아이의 특이한 탄생이 치욕을 초래할 두려움 때문에 버려진 경우가 있으며, 그리고 셋째로 아이가 미워서 버려진 기아가 있다.<sup>19)</sup> 이 논문에서 다룰 작품은 다음과 같다.

버림의 동기	중국	한국	일본
동정	江流和尚이야기	열두삼천벌 東明王神話	捨兒(芥川龍之介)
두려움	後稷神話	崔孤雲傳	弃廢物語
미움	童子本生	바리공주	누에의 유래(蚕の始め)

17) Binder, Gerhard. "Aussetzung" in Ranke, Kurt; Bausinger, Hermann.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erlin: de Gruyter, 1999, 1 A-Ba, p.1049.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産業社, 1982), 288쪽, <英雄의 一生>을 참조. Frenzel, Elisabeth. *Motive 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80, pp.344-345. Seigneuret, Jean-Charles.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8, pp. 175-191; Rank, Otto.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a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myth* translated by Gregory C. Richter and E. James Lieberma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p.47.

18) Childs, Brevard S. "The Birth of Mos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84, No. 2, Jun. 1965, p.116.

19) Redford, Donald.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Numen*, Vol. 14, Fasc. 3(Nov. 1967), p.211.

#### (1) 中國作品

棄兒의 모티브가 나타난 중국작품으로 서유기 제9회<sup>20)</sup>의 <江流和尚>이야기, 건국신화의 後稷神話, 그리고 불교설화의 《童子本生》 등이 있다.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는 삼장법사의 출생에 관한 因緣談이다.<sup>21)</sup> 삼장법사의 아버지인 陳光蕊가 任地에 가는 도중에 水賊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삼장법사의 어머니는 賊에게 강요되어 賊의 妻가 되고 삼장법사를 낳는다. 그리고 賊 때문에 長江에 버려진 삼장법사는 金山寺의 長老에 의해 구제되어 출가한다. 삼장법사는 成人이 된 후 부모의 원수를 갚아 一家는 前世의 功에 따라 다시 團圓한다.

삼장법사의 어머니는 어린 삼장법사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장강에 버렸다. 後稷의 신화는 《詩經》과 《史記》<sup>22)</sup>에 나왔었다. 後稷은 周나라의 시조인데 그의 어머니 姜嫄이 巨人의 발자국을 밟고 나서 임신하였는데 아이를 낳고서 상스럽지 못하다고 여겨 아이를 버렸다. 棄兒라는 운명은 後稷의 이름 棄에서도 반영된다. 後稷이 버림을 당하고 나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生民》이라는 시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 아이를 좁은 길에 버려두니까  
소와 양이 밟지 않고 보호하였고  
그 아이를 숲 속에다 버려두니까  
나무 베는 사람들이 구해 왔으며  
그 아이를 얼음 위에 버려두니까

誕賁之隘巷  
牛羊腓字之  
誕賁之平林  
會伐平林  
誕賁之寒冰

20) 《西遊記》제9회는 玄奘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저자의 친작인지 그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용되는 《西遊記》에는 '부록'이나 '제9회'의 回目으로 되어 있다.

21) 磯部彰, 《<西遊記>形成史の研究》(創文社, 1993), 273쪽.

22) 《史記》, 卷四, <周本紀>, 第四: 周後稷, 名棄. 其母有邵氏女, 曰姜原. 姜嫄爲帝嚳元妃. 姜原出野, 見巨人跡, 心忻然說, 欲踐之, 踐之而身動如孕者. 居期而生子, 以爲不祥. 棄之隘巷, 馬牛過者皆辟不踐; 徙置之林中, 適會山林多人, 遷之; 而棄渠中冰上, 飛鳥以其翼覆薦之. 姜原以爲神, 遂收養長之. 初欲棄之, 因名曰棄. 棄爲兒時, 屹如人之志. 其遊戲, 好種樹麻, 菽, 麻, 菽美. 及爲成人, 遂好耕農, 相地之宜, 宜穀者稼穡焉, 民皆法則之. 帝堯聞之, 舉棄爲農師, 天下得其利, 有功. 帝舜曰: <棄, 黎民始饑, 爾後稷播時百穀.> 封棄於邵, 號曰後稷, 別姓姬氏. 後稷之興, 在陶唐, 虞, 夏之際, 皆有令德.

새들이 덮어주고 보호했었네  
 새들이 날아가자 후적이 울었네  
 참으로 우렁차고 길게 퍼지니  
 울음소리 한길까지 가득 울렸네

鳥覆翼之  
 鳥乃去矣, 後稷呱矣  
 實覃實訐  
 厥聲載路<sup>23)</sup>

後稷이 한 번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버려졌는데도 죽지 않았다. 몇 번을 버림을 당하는 棄兒는 《童子本生》에서도 나타난다.

불교설화인 《童子本生》의 출처는 불교설화집의 《六度集經》이다.<sup>24)</sup>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가 전생 때 보살이었을 때 가난한 가족에서 남자아기로 태어났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어려워서 속옷에 싸 몰래 길에 버렸다. 과부가 기아를 발견하여 결국에는 아이가 없었던 부잣집에서 살게 됐는데 몇 개월 후에 부자의 아내가 갑자기 임신했다. 이에 부자가 양자를 옷에 싸 구덩이에 버렸는데 부자의 양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목부가 아이를 발견해서 아이를 다시 부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부자는 아이를 다시 기르지만 친아들이 태어난 다음 다시 양자를 길에다 버렸다. 상인의 수레가 이 길을 지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인의 소가 가지 않아 상인이 아이를 발견하고 과부에게 맡겼는데 부자가 이것을 알고 나서 후회가 되어 다시 양자를 기르게 되었다.

몇 년 후에 부자는 양자가 친아들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양자를 산속의 숲에 버렸는데 나무 베는 사람이 양자를 구해 주었다. 부자가 이것을 알고 나서 또 양자를 기르게 되어 공부도 시켜 주었다. 양자의 재주가 뛰어난 나라에 이름나서 다시 양자를 버리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번에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양자를 철공에게 보냈는데 부자는 편지에 양자를 화로에 던져 죽이라고 부탁했다. 양자는 가는 길에 동생을 만나 양자대신에 동생이 철공에게 편지를 전달하자 결국 철공이 양자의 동생을 화로에 던져 죽였다. 부자가 이 사건을 알고

23) 《詩經·大雅·生民》

24) 劉守華, <《六度集經》與中國民間故事>, 華中師範大學, 《外國文學研究》, 2007年 第3期.

서 병이 나서 양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 장원에 보냈는데 편지에서 양자를 돌과 같이 물에 빠뜨리라고 부탁했다. 양부의 부탁에 따라 양자는 가는 길에 양부의 친구 梵志를 방문했는데 범지의 딸이 편지의 내용을 발견하고는 아버지에게 알려 양자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부자가 양자의 결혼소식을 듣자 병이 더 심해졌는데 범지의 딸이 며느리의 신분으로 부자에게 인사하자 부자는 기가 막혀서 죽었다.<sup>25)</sup> 《童子本生》에서 나오는 棄兒는 이야기로서 전부 네 번 버림을 당한다.

## (2) 韓國作品

한국작품으로 平安南道の 民譚 《열두삼천별》, 고구려의 건국을 서술하는 東明王神話, 바리공주에 대한 신화, 그리고 신라시대에 활동했던 학자인 崔致遠의 《崔孤雲傳》 등이 있다.

《열두삼천별》에서 사슴발을 가진 고구려의 왕비가 한 번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모두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사슴발을 가졌다. 왕은 상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12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마 아이들을 죽이지 못해서 대신에 상자에 놓고서 강에 버렸다. 이에 12명이 상자 안에서 중국까지 흘러갔는데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어른이 되고 나서 12 장군으로 한국을 침략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는 중국으로 돌아갔다.<sup>26)</sup>

《열두삼천별》의 민담에서는 어머니가 12명의 아들을 죽을 상황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모두 강에 버렸다.

동명왕신화에서 동명왕도 後稷과 《童子本生》에서 등장하는 棄兒와 같이 버림

25) 《大正新脩大藏經》卷3, 《六度集經》卷5, 《童子本生》, 高楠順次郎 編(알타이하우스, 1981), 25-26쪽; CBETA Reader 2008.

26)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通文館, 1958), 379-381 쪽, Choi, In-Hak,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s* Seoul: Myong Ji University Publishing, 1979, pp.70-71. 崔仁鶴,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仁荷大學校出版社, 1994), 298쪽.

을 몇 번이나 당한다.

金蛙(북부여의 왕)가 유화(河伯<sup>27</sup>)의 딸)를 집에 두었더니, 햇빛이 비쳐 몸을 피해도 쫓아가며 비추었다. 이로 해서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들이나 되었다. 왕이 버려서 개, 돼지에게 주어도 먹지 않으며, 길에 버리면 소나 말이 피해 가고, 들에 버리면 새와 짐승이 덮어 주었다. 왕이 깨뜨리려 해도 깨어지지 않으니 도로 어미에게 주었다. 어미가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니, 한 아이가 깍질을 깨고 나왔다. 기골이 영특하고 기이하여 7세에 벌써 보통 사람과 다르게 뛰어났다.<sup>28)</sup>

동명왕은 전부 세 번이나 버림을 당한다.

《崔孤雲傳》은 신라시대의 학자 崔致遠에 대한 전설이다. 이 전설에는 棄兒라는 모티브가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신라 때, 부임하는 신입현령마다 부인이 실종되는 文昌에게 현령으로 부임한 崔冲은 미리 부인의 손에 명주실을 매어 두었다가 부인이 실종되자 찾아 나선다. 실이 뒷산 바위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최충은 부인을 잡고 있던 금돼지를 죽이고 부인을 구하여 온다. 그 후,

충의 아내가 낳은 아이는 그녀가 집에 있을 적에 잉태한 것이 분명하였다. 그런데 접때 갑자기 금돼지의 변을 당한 것으로 인해 충은 그 아이가 금돼지의 자식이라고 여기고는 해변 가에 버렸다. 그러나 하늘이 그 아이가 버림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 天女를 보내 젖을 먹여 길렀다.<sup>29)</sup>

여기서 금돼지의 아들로 여겨지게 되는 棄兒는 崔致遠을 말한다. 아버지는 아들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崔致遠을 해변에 버렸다.

27) 하백은 본래 중국 水神의 이름이다.

28) 《三國遺事·高句麗》: 幽閉於室中.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 生一卵. 大五升許. 王弃之與犬猪. 皆不食. 又弃之路. 牛馬避之. 弃之野. 鳥獸覆之. 王欲剖之. 而不能破. 乃還其母. 母以物裹之. 置於暖處. 有一兒破殼而出. 骨表英奇. 年甫七歲. 岐嶷異常.

29) 최삼룡, 《한국고전문학전집》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430-431쪽. 冲之妻所産之兒. 在家之時. 孕之必然. 向者忽被金猪之變. 冲稱其兒爲金猪之子. 而棄之於海濱. 天恤其兒見棄. 遣天女乳哺養之矣.

바리공주는 일곱째 공주로 태어나 버려졌기에 ‘버림받은 공주’라는 의미의 ‘바리공주’로 불려졌다.

옛날 어느 대왕이 世子가 15세가 되었을 때 무당에게 세자의 결혼에 대해 물었다. 무당의 점괘는 당년에 결혼하면 7공주를 낳고 그렇지 않으면 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나왔다. 대왕은 무당의 점괘를 무시하고 당년에 결혼시켰다. 그리고 곧 세자는 왕위를 이어받았다. 신왕의 妃는 무당의 말대로 7명의 공주를 낳았다. 이들을 간절하게 바라 신왕은 화가 나서 갓난 딸에게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써 붙여 바다에 버렸다. 거북이 나타나 바리공주를 등에 태워 데려갔고, 바리공주는 용궁에서 자랐다. 15살이 되었을 때 바리공주는 낳은 부모인 신왕 부부를 만났는데, 그때 신왕부부는 병이 들어 있었다. 무당에게 점을 치니 바리공주가 구해 오는 불사약을 먹어야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저승으로 들어가 부처님을 만나고 이승으로 나와 신선으로부터 약수를 구했다. 바리공주가 돌아왔을 때는 부모가 이미 죽었으나 죽은 부모에게 약수를 먹여 회생시켰다. 바리공주는 신선과 결혼하여 일곱 아들을 낳고 스스로 무당이 되었다.<sup>30)</sup>

### (3) 日本作品

일본작품으로는 芥川龍之介의 소설 《捨兒(수테고)》(1920년 初出), 《벤케이 모노가타리(弁慶物語)》, 그리고 《누에의 유래(蚕の始め)》 등과 같은 昔話(무카시바니시)를 찾을 수 있다.

《捨兒(수테고)》는 대화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어떤 절의 정문 앞에서 견직물에 싸인 남자아이가 버려졌는데 절의 住職인 노인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절의 스님에게 맡긴다. 스님이 이 아이를 길러 주는데 5년 뒤에 친부모를 찾고 싶은 스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親子의 恩愛에 대해서 설교한다. 어떤 여자는 자기가 5년 전에 갓난아이를 버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아이를

30) 金鎮英·洪泰漢, 《바리공주전집》(民俗苑, 1997) 참조.

정성껏으로 길러 준다.

여기서 독백이 끝나고 話者在 “이 棄兒는 바로 나다.”라는 문장에서 ‘나’로 등장한다. ‘客’이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니 話者는 어머니라고 한 여자가 벌써 죽었는데 이 여자는 결국 자기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고 대답하였다.<sup>31)</sup>

《捨兒(수태고)》에서 나오는 棄兒는 구체적으로 왜 버려졌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죽이기 위해서 아이를 버렸다면 절의 정문 앞에서 버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아이를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아이를 버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

《벤케이 모노가타리(弁慶物語)》는 미나모토 요시츄네(源義經, 1159-89)의 從者가 될 무사시보 벤케이(武藏坊弁慶)에 대한 이야기이다.

벤케이의 어머니는 3년 동안 벤케이를 임신한 뒤에야 벤케이를 낳았다. 벤케이 는 태어날 때 벌써 3살된 아이처럼 생겼는데 모습이 매우 무서워서 아버지가 바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반대하여 결국 벤케이를 산속에 버렸다. 일주일 후에 벤케이의 死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람을 산속에 보냈는데 뜻 밖에 건강한 벤케이를 만나 도망갔다.

이 때 大納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若一王子<sup>32)</sup>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다. 꿈 속에서 산속에 棄兒가 기다린다고 가르쳐 주어 大納言이 결국 벤케이를 산에서 데리고 와서 길러 주었다.<sup>33)</sup>

벤케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특이한 탄생을 두려워해서 벤케이를 산속에 버렸다.

《누에의 유래》에서는 계모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공주인 의붓딸을 죽이려고 하여 매가 많은 산에 공주를 버렸다. 공주가 너무 아름다워 매는 공주를 차마 해치지 못하여 날개 위에 태워 원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일주일 후에 계모는 공주

31) 芥川龍之介, 《芥川龍之介全集》제2권, 捨兒 其他, 岩波書店, 1927, 571-579쪽.

32) 若一王子는 神佛習合의 神이다.

33) 弁慶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전설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루는 탄생은 《벤케이 모노가타리(弁慶物語)》에서 나오는 버전이다. 市古 貞次 등, 新日本古典文學大系, 《室町物語集》, 岩波書店, 1992 참조. 벤케이 탄생의 다른 버전에 대하여 《吾妻鏡》, 《義經記》, 《橋弁慶》등 참조.

를 멧돼지가 많은 산에 버리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멧돼지도 매처럼 공주를 해치지 않고 태워 집에 데리고 갔다. 또 일주일 후에 계모가 살아 있는 공주를 통에 담아 정원에 묻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정원에서 나는 빛을 발견하여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공주가 구제되어도 누가 자기를 땅에 묻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다시 집에 없을 때 계모가 공주를 밀봉한 배에 놓고 바다에 버렸다. 이번에는 어부 부부가 공주를 구제하여 딸로 입양하였는데 얼마 후 공주가 죽었다. 어부 부부가 공주의 관에서 공주 대신에 누에를 발견하고 나서 공주가 꿈에서 나타나 가잠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누에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 네 번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공주가 네 번 버림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으로 끝난다.<sup>34)</sup>

《누에의 유래》에서 계모는 공주가 미워서 4번을 공주를 버렸다.

#### 4. 棄兒가 등장하는 韓中日文學作品의 特性

棄兒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작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5)</sup>

작품	동기	버림의 장소	棄者	구제자	棄兒의 出世
江流和尚	동정	장강	어머니	절의 長老	삼장법사
捨兒	동정	절		절의 주직	
열두삼천 벌	동정	강	어머니		장군
後稷神話	두려움	1. 좁은 길 2. 숲 속	어머니	소, 양 나무 베는	周的 시조

34) 關敬吾, 《日本昔話大成》2권(角川書店, 1982), 147-151쪽. Ikeda, Hiroko.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 Helsinki: Suomalainen Tiedekatemia, 1971, pp.167-168.

35) Redford, Donald.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Numen*, Vol. 14, Fasc. 3 (Nov. 1967), p.225.

		3. 얼음 위		사람 새들	
東明王神話	두려움	1. 개, 돼지 2. 길 3. 들	王	개, 돼지 소, 말 새, 짐승	고구려 시조
崔孤雲傳	두려움	해변가	아버지	天女	학자
并慶物語	두려움	산 속	아버지		源義經의 從者
童子本生	빈곤	1. 길	어머니	과부	後生: 부처
	미움	2. 구덩이 3. 길 4. 산속의 숲	養父	양, 목부 상인 나무 베는 사람	
바리공주	미움	바다	아버지	거북	多能한 神
蚕の始め	미움	1. 매가 많은 산 2. 멧돼지가 많은 산 3. 땅에 묻었다 4. 바다	繼母	매 멧돼지 아버지 漁夫夫婦	가잠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상 韓中日문학에서 棄兒가 등장하는 작품 10 개를 소개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서론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자.

아이가 버려진 모티브가 어떻게 생겼을까?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를 버리는 동기로서 동정, 두려움, 미움, 빈곤 등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나 문제를 들 수 있고 아이를 버린다는 것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회적인 현상이었다.<sup>36)</sup> 다시 말하면 棄兒라는 모티브는 상상의 형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빌린 것이다.<sup>37)</sup> 그런데 棄兒라는 문학적 모티브는 ‘최초의 기원(locus classicus)’이 있는가?

모티브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인간의 정신적인 동일성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그림형제는 영혼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여 모든 모티브가 ‘근원 신화(Urmythos)’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고, 괴테에 의하면 모티브는 ‘인간 정신의 현상’<sup>38)</sup>이다. 그리고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모티브를 공통적인 무의식의 소산으로 봤다. 두 번째 이론은 방산이론(Diffusionstheorie), 또는 이동이론(Wanderungstheorie)<sup>39)</sup>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모티브의 ‘최초 기원’이 있고 나중에 생긴 작품들이 모두 이 ‘최초 기원’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론은 모티브의 창의적 발생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는 기후, 환경, 사회 등이 유사하면 모티브도 유사하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이론만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작품마다 영향을 받은 요소도 있고 창의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sup>40)</sup>

도표의 세 번째 칸에서 棄兒를 버리는 장소가 나오는데 장소를 크게 나누면 대지와 물이다. 아이를 물에 버리는 것과 대지에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야기가 유행했던 지방에 물이 많으면 아이를 물에 버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물이 별로 없고 산이 많으면 산에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그러나 그 외에는 대지와 물이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비교종교학자인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래의 대지로서, 특히 지층과 지하로서의 대지의 최초의 신적 현현의 하나는 그 ‘母性’, 열매를 맺는 무궁무진한 능력이었다. 지모신으로, 풍요의 여신으로 간주되

36) Childs, Brevard S. "The Birth of Mos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84, No. 2, Jun. 1965.

37) Frenzel, Elisabeth. *Motive 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80, pp.342-343.

38) "Was man Motive nennt, sind also eigentlich Phänomene des Menschengestes, die sich wiederholt haben und wiederholen werden, und die der Dichter nur als historische nachweist.": Goethe, Johann Wolfgang von. *Maximen und Reflexionen*. Stuttgart: Alfred Krner Verlag, 1949, p.94.

39) 大林太良, <説話の比較研究の方法>, 《日本昔話大成》12권(角川書店, 1982), 11-12 쪽.  
40) Frenzel, Elisabeth. *Stoff-und Motivgeschichte*. Berlin: Erich Schmidt Verlag, 1966, pp.60-67; Thompson, Stith. *The Folktale*. New York: The Dryden Press, 1946, pp.367-390 (스티스 톰슨 著, 黃汎江 監修, 尹勝俊, 崔光植 共譯, 《説話學原論》, 啓明文化社, 1992, 451-479쪽).

41) Redford, Donald.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Numen*, Vol. 14, Fasc. 3 (Nov. 1967), p.227.



기 이전에 대지는 ‘어머니’, ‘대지 어머니(Tellus Mater)’로 인정되고 있었다.<sup>42)</sup>

다시 말하면 아이를 대지에 버리는 것은 아이를 대지라는 ‘어머니’의 품에 놓는 것이다. 대지는 아이의 수호자이며 모든 힘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물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물은 파괴하고 정화하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sup>43)</sup>

물과 대지라는 우주의 기본 요소에 버려진 아이는 죽을 고비에 이르지만 이 고비를 극복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영웅이나 왕이 된다.<sup>44)</sup>

네 번째 칸을 보면 아이를 버리는 자는 대부분 아이의 부모나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sup>45)</sup>는 말처럼 영웅이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의 품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같다.<sup>46)</sup>

아이에게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아이를 인간사회에서 축출하고 자연에게 맡긴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물들이나 인간사회에 깊이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버려진 아이를 구제한다는 것도 이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자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이를 인간사회에서 축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이 버림을 통해서 아이에게 인간사회를 초월함

42) Eliade, Mircea.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Bibliothèque historique Payot: Paris, 1949, p.254 (미르치아 엘리아데 著, 이재실 譯, 《종교사개론》, 까치, 1993, p.235).

43) Binder, Gerhard. *Die Aussetzung des Königskindes, Kyros und Romulus*. Meisenheim am Glan: Anton Hein, 1964, p.37 인용. Seigneuret, Jean-Charles. 'Birth of the Hero'.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8, p.176. 侯會, <“傳假信”與“江流儿”——《水滸》中兩個世界性的民間故事類型>, 人大復印資料《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2007年, 第1期 참조.

44)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知識產業社, 1982), 288쪽; Eliade, Mircea.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Bibliothèque historique Payot: Paris, 1949, p.257(미르치아 엘리아데 著, 이재실 譯, 《종교사개론》, 까치, 1993, 239쪽).

45) "Nemo propheta acceptus est in patria sua." <루카 4, 24>

46) Rank, Otto.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a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myth* translated by Gregory C. Richter and E. James Lieberma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p.48.

으로써 超人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sup>47)</sup>

융(Jung)의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라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어머니와 無意識 속에 元型(Archetypus, archetype)으로서의 어머니, 즉 보편적인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어머니를 뜻하지만 그 배후에 개인을 초월한 元型으로서의 어머니인 존재가 느껴진다. 개인으로서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 주면서 길러 주지만, 반면에 안아 주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가 자립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아이가 자립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아야 한다.<sup>48)</sup>

융은 <이중의 어머니>라는 글에서 영웅은 왜 자주 버려지고 그래서 자주 양부모에게 양도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영웅은 두 어머니를 만나다. .....두 어머니 주제는 二重의 출생에 대한 생각을 시사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실재하는 인간적인 어머니지만: 또 다른 어머니는 상징적인 어머니로 神의이고 초자연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비범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녀는 또한 동물의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sup>49)</sup>

융의 입장과 엘리아데의 입장을 棄兒라는 모티브와 연결시키면 개인으로서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元型으로서의 어머니, 즉 대지어머니에게 맡긴다는 것은 개인의 완전한 자립, 즉 영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棄兒가 등장하는 韓中日文學作品中에서 어떤 특성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작품들이 한정되어서 棄兒가 등장하는 韓中日文學作品的 특성을 드러내기 쉽지 않지만, 만일 특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韓中日文學作品中에서 등장하는 棄兒 중에 두 번 이상 버림을 당하는 것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47) Binder, Gerhard. "Aussetzung" in Ranke, Kurt; Bausinger, Hermann.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erlin: de Gruyter, 1999, 1 A-Ba, pp.1050-1051.

48) 河合隼雄, <昔話의 心理學的 研究>, 《日本昔話大成》12권(角川書店, 1982), 150-151, 154-155 쪽; Jung, Carl Gustav.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Mother Archetype",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p.73-110.

49) 융 C.G. 著,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 譯, 《영웅과 어머니 원형》(솔출판사, 2006), 256-257 쪽.

서양문학에서 등장하는 棄兒라는 모티브를 연구한 기존결과에 따르면 서양문학에서 棄兒가 두 번 이상 버려진 경우를 찾기 어렵다.<sup>51)</sup> 그러면 어떻게 동양에서만 棄兒를 두 번 이상 버려진 모티브가 생겼을까?

여기서 한중일 세 나라의 철학적인 배경을 한 번 살펴보자.

《孟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찾을 수 있다.

하늘이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적에 반드시 먼저 그 心志를 괴롭히며, 그 筋骨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하여, 그의 하는 것을 어그러뜨리고 어지럽히는 것을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부분을 증식시키기 위한 것이다.<sup>52)</sup>

맹자는 먼저 百煉成鋼, 千琢成器의 뜻대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질을 참게 하여, 그 능하지 못한 부분을 증식시킨다.”는 부분이다. 즉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忍耐力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유가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사상에서도 참는 것, 즉 忍辱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대승불교의 핵심수행법은 六波羅蜜은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를 포함하고 있다.<sup>54)</sup> 그러면 인옥바라밀의 실천, 즉 참는 힘을 기르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55)</sup>

50) 後稷神話와 東明王神話에서 나오는 棄兒는 각각 3번 버림을 당하고 《六度集經·童子本生》과 《누에의 유래》에서 나오는 棄兒는 4 번 버림을 당한다.

51) 기아라는 문학적 모티브가 등장하는 서양 작품에 대해서 Redford, Donald.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Numen*, Vol. 14, Fasc. 3 (Nov. 1967). Ranke, Kurt; Bausinger, Hermann.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erlin: de Gruyter, 1999, 1 A-Ba, pp.1051-1065; Binder, Gerhard. *Die Aussetzung des Königskindes, Kyros und Romulus* Meisenheim am Glan: Anton Hein, 1964 참조.

52) 《孟子》, <告子下>, 제 15 장: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53) 侯會, <“傳假信”與“江流兒”——《水滸》中兩個世界性的民間故事類型>, 人大復印資料《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2007年 第1期.

54) 中村元, 《仏教辭典》(岩波書店, 2002), 805, 1073쪽;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電子佛敎辭典: <http://www.buddhism-dict.net/ddb/>

위에서 소개한 작품 《童子本生》의 출처는 《六度集經》인데 《六度集經》의 六度는 바로 六波羅蜜을 말한다. 《六度集經》은 육바라밀에 따라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童子本生》은 바로 인옥을 다루는 제5권에서 나온다.<sup>56)</sup>

그래서 두 번 이상 棄兒를 버리는 모티브가 단순히 버림을 강조하기 위해서만 들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동양에서 철학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忍耐力이라는 능력을 위대한 사람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버림을 당하는 棄兒라는 모티브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

## 5. 結論

이상 棄兒라는 문학적 모티브가 등장하는 한중일 문학 작품에서 10개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棄兒라는 모티브를 분석하는 데 먼저 棄兒라는 모티브는 다만 상상의 형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빌린 것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모티브의 유사성을 해석하는 데 인간의 정신적인 동일성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반면에 문학적 영향을 중시하는 모티브의 이동이론(Wanderungstheorie)과 모티브의 창의적인 발생을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아이가 버려진 장소로 대지와 물이 있는데 대지는 母性, 물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제시하였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 부모인 것은 아이를 사회에서 축출함으로써 아이에게 인간세상을 초월하는 超人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심리학의 이론을 빌려서 어머니가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아이를 완전히 자립시킨다는 뜻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서양문학과는 달리 한중일문학

55) 이 맥락에서 석가모니가 전생에서 忍辱仙人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金剛經 第14》

56) 中村元, 《仏教辭典》(岩波書店, 2002), 1073쪽; 劉守華, <《六度集經》與中國民間故事>, 華中師範大學, 《外國文學研究》, 2007年 第3期.

에서 등장하는 棄兒 중에 두 번 이상 버려진 특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棄兒라는 文學적 모티브는 韓中일문학에서 나오는 모든 모티브라는 모자이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인간 정신의 현상’인 모티브에 대한 연구는 文化적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 < 參考文獻 >

CBETA Reader 2008.

《大正新脩大藏經》卷3, 《六度集經》卷5, 《童子本生》, 高楠順次郎 編, 알타이하우스, 1981.

續修四庫全書 1764: 集部 戲劇類,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顧廷龍 主編, 上海古籍出版社, 1995.

芥川龍之介, 《芥川龍之介全集》제2권, 捨兒 其他, 岩波書店, 1927.

關敬吾, 《日本昔話大成》, 角川書店, 1982.

磯部彰, 《<西遊記>形成史の研究》, 創文社, 1993.

金榮華, 《中國民間故事集成類型索引》, 中國口傳文學學會, 2000.

金鎮英; 洪泰漢, 《바리공주전집》, 民俗苑, 1997.

吳亮, 虛名奎, 《忍經》, 藍天出版社, 2007.

柳增善, 《嶺南의 傳說》, 螢雪出版社, 1971.

용 C.G. 著, 한국용연구원 C. G. 용 저작 번역위원회 譯, 《영웅과 어머니 원형》, 서울출판사, 2006.

任哲宰, 《任哲宰全集》, 평민사, 1989.

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1982.

朱迪光, 《信仰·母體·敘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中村元, 《仏教辭典》, 岩波書店, 2002.

崔三龍, 《韓國古典文學全集》24,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6.

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崔仁鶴,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仁荷大學校出版社, 1994.

劉守華, 《<六度集經>與中國民間故事》, 華中師範大學, 《外國文學研究》, 2007年第3期.

侯會, <“傳假信與江流儿” - 《水滸》中兩個世界性的民間故事類型>, 人大復印資料 <中

國古代、近代文學研究》, 2007年, 第1期.

Binder, Gerhard. *Die Aussetzung des Königskindes, Kyros und Romulus*. Meisenheim am Glan: Anton Hein, 1964.

Choi, In-Hak.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s*. Seoul: Myong Ji University Publishing, 1979.

Daemmrich, Horst S., Daemmrich, Ingrid. *Themen und Motive in der Literatur: ein Handbuch*. Tuebingen: Francke, 1987.

Eberhard, Wolfram. *Typen chinesischer Volksmärchen*.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37.

Eliade, Mircea.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Bibliothèque historique Payot: Paris, 1949, p.257(미르치아 엘리아데 著, 이재실 譯, 《종교사개론》, 가치, 1993, 239쪽).

Frenzel, Elisabeth. *Stoff-und Motivgeschichte*. Berlin: Erich Schmidt Verlag, 1966.

Frenzel, Elisabeth. *Stoffe 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76.

Frenzel, Elisabeth. *Motiveder Weltliteratur: Ein Lexikon dichtungsgeschichtlicher Längsschnitte*. Stuttgart: Kröner, 1980.

Gfrereis, Heike. *Grundbegriffe der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Metzler, 1999.

Gunkel, Hermann 著, Rutter, Michael D. 譯. *The folktale in the Old Testament*. Sheffield: Almond Press, 1987.

Ikeda, Hiroko.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1.

Jost, Francois.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iterature*. Indianapolis: Bobbs-Merrill, 1974.

Lüthi, Max. *Das europäische Volksmärchen*. Tübingen: UTB, 2005.

Rank, Otto. *The myth of the birth of the hero: a psychological exploration of myth*. translated by Gregory C. Richter and E. James Lieberma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4.

Ranke, Kurt; Bausinger, Hermann. *Enzyklopädie des Märchens*. Berlin: de Gruyter, 1999.

Seigneuret, Jean-Charles.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8.

Thompson, Stith. *Dictionary of Literary Themes and Motif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58.

Thompson, Stith. *The Folktale*. New York: The Dryden Press, 1946 (스티스 톰슨 著, 黃汎江 監修, 尹勝俊, 崔光植 共譯, 《說話學原論》, 啓明文化社, 1992).

Ting, Nai-tung. *A Type Index of Chinese Folktales in the Oral Tradition and Major Works of Non-Religious Classical Literature*.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8.

Weisstein, Ulrich.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Literaturwissenschaft*. Stuttgart: Kohlhammer, 1968.

Zong, In-sob. *Folk tales from Kore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2.

Childs, Brevard S. The Birth of Mos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84, No. 2, Jun., 1965.

Jung, Carl Gustav.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Mother Archetype", *The Archetyp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Redford, Donald.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Numen*, Vol. 14, Fasc. 3(Nov. 1967).

Würzbach, Natascha. "Theorie und Praxis des Motiv-Begriffs. Überlegungen bei der Erstellung eines Motiv-Index zum Child-Korpus." *Jahrbuch für Volksliedforschung*, 38, 1993.

< Abstract >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can be frequently found in Western literature, e.g. Moses, Romulus, Remus, Oedipus. But are there also counterparts in East Asian literature? Or is the exposed child a literary motif that is limited to the Western world?

The deplorable state of research on motifs in East Asian literature spurred me to start gathering all possible sources relevant to the research on motifs i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literature.

In general the exposed child in East Asian literature develops into a "hero" similar to exposed children in Western literature. But in contrast to the

occidental tradition where the child is usually exposed only once or very rarely twice East Asian literature presents some children who are exposed three or even more times. One explanation for the phenomenon of repeated exposure could be the great value that is attached to the ability of endurance(忍) in East Asian philosophy and society. The method of forming a "hero" by exposing is common in both Western and East Asian literature. But according to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 hopes placed in the "hero" varies. In this aspect, repeated exposure seems to provide the East Asian "hero" with the ability of endurance. The literary motif of the exposed child is only one piece of a great mosaic of motifs in East Asian literature still unknown to the Western world. Research on these motifs, as phenomenons of the human mind, will be of great value for successful cultural communication.

Key words: exposed child, hero, endurance, literary motif, phenomenons of the human mind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8. 7. 12	2008. 8. 4	2008. 8. 15	2008. 9. 20	2008. 9. 30